

<p>교 훈</p> <p>꽃처럼 아름답게 나무처럼 굳세게</p>	<p>나누는 사랑, 커가는 꿈, 행복한 학교</p> <p><b>승지교육</b>  <b>통신안내</b></p> <p>교무실 070-7013-8682, 행정실 070-7013-8605</p>	<p>제2020- 호</p> <p>담당자: 양나현</p>
---	---	---------------------------------

- 또 하나의 언어, 수어-

## ‘코로나-19’를 어떻게 수어로 표현할까요?

날씨가 제법 쌀쌀해진 요즘입니다. 하지만, 가정에는 늘 따뜻한 온기가 함께 하하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코로나 블루’ 라고 칭할 만큼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간이 오래되어 이런 저런 제약에 마음의 거리마저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멀어진 거리를 좁히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수어통역사’ 입니다. 아래의 화면 뉴스에서 많이들 보셨지요? 질병관리본부의 브리핑 때 왼쪽 화면에서는 수어통역사의 전신을 비추어 주고, 오른쪽 화면에서는 한쪽 귀통이에 작게 수어 통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비친 두 화면의 차이는 어떠한가요? 정보를 전달 받기 위해 큰 화면으로 실감나게 정보를 전달 받는 왼쪽 화면과, 귀통이에 작은 창을 통해 정보를 전달받는 오른쪽 화면이 새삼 다르게 느껴지지 않나요? 수어 통역 화면을 작게 제공하는 것은 비장애인이 대화할 때 작게 속삭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자막으로 시각화하고 있지만, 한글은 농인들에게는 모국어가 아닌 제2외국어나 다름없는 문자입니다. 화면속의 작은 변화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권리이자 간절히 기다리던 장면이었음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진] 코로나-19 브리핑을 동시 통역 중인 수어통역사

한 수어 통역사가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중화항체 등  
한국어에도 새로운 단어가 도입되었듯이  
수어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수어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리를 듣지 못하는 농인에게 전달할 때,  
어떻게 단어로 전달하면 좋을까요?

최근 국립국어원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코로나 영어 알파벳의 ‘C’와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양의 특징인 ‘돌기’ 모양을 특징 삼아 아래와 같이 수어로 사용하기를 권장하였습니다.



[사진] 코로나-19를 지칭하는 수어

수어는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로 하는 언어 대신 ‘손으로 하는 언어’라 하여 ‘수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수어’는 국제적으로도 인정 받는 ‘언어’입니다. 단순히 농인의 대체 소통 수단이 아닌,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이고, 그들이 우리의 언어(한국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언어(수어)를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뜻을 가진 언어이며 마음을 나누는 언어라는 점에서 같다는 것은 명백한 공통점이지요.

앞으로 TV 화면에 수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코로나-19’ 브리핑뿐만 아니라 더 다양하고 더 많은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및 참고

유퀴즈 온더 블록 제 75회, 금손특집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127&aid=0000029250>

기자협회보-‘코로나 보도 화면에 나란히 선 수어통역사, 귀통이에 작게 놓인 수어통역사’

2020년 11월 20일

승지초등학교장